

#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언제까지 미룰건가

### 국회 환노위 오늘 논의 재개 한국당 “기간보다 내용 중요” 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논의의 결정 시한을 오는 27일 오전 9시로 연장했다. 환노위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26일 오후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규정’의 2대 쟁점을 놓고 각 당 입장을 다시 정리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부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 당 입장을 내일(27일) 아침까지 정리를 해 오전 9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산안법은 176개 조문으로 돼 있는 전부개정안으로 이 중에서 8개 부분 25개 조항이 쟁점이었다”며 “대부분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도급인 책임강화와 양벌 규정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소위 의원들 일부가 노동자, 사용자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개토론을 하라고 제안했다”며 “법안 처리 기간보다 내용이 중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공개토론을 거치되 그 방법은 노동계 쪽에서 해오는 무순방안이라도 수용한다고 했다”며 “이를 토대로 3당 간사 간 협의의 결과 내일 오전 9시 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산안법이 처

리될 가능성에 대해 “일단 열어놓고 보자”며 “기간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얼마만큼 담아내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개토론도)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한정에 민주당 의원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2개 쟁점이 합의 안 되는 게 아니다 다시 공청회를 하자는 건 쟁점을 다시 돌리는 거 아닌가”라며 “2개를 합의 한다고 하면 얼마

법제사법위원회를 할 수 있는 거라 같은 날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데 원내지도부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종료가 다음 달 중순이라고 하니 연내 처리 의지는 없는 것 같다”며 “(쟁점을) 더 조율할게 뭐가 남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회의장 앞에 하루종일 머물고 있는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살인을 했으면 살인죄를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 나라에 묻고싶다”며 “정부와 기업이 한 가정을 처참히 짓밟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항의했다.

환노위는 27일 오전 9시 고용노동소위를 다시 열어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듣는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오전 10시30분 전체회의를 통해 환노위에서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또 합의 실패...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 회계 단일화 등 놓고 대치

### 이찬열 위원장 “신속처리 필요”

여야가 26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들 법안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은 회계 단일화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차례나 파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불거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고,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 회계 일원화 ▲ 지원금 형태 유지 ▲ 벌칙조항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이 주로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법 제85조 2항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한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는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러나 상정 기간만 1년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오히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수당 국회 법제사법위 개정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규범 실천결의대회

### 광역·기초의원 54명 참여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 의원들이 각 의회별로 사회적약자에 대한 갑질 및 여성비하, 폭언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을 다짐하는 ‘당 윤리규범 실천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 의장 등 민주당 소속 도의원 54명은 지난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당 윤리규범 실천 결의문을 채택하고 금품향응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등을 근절할 것을 다짐했다.

여주시의회 서완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여주시의원 19명은 2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장흥군의회(의장 위등)·보성군의회(의장 신경균) 민주당 소속 군의원들은 지난 18일과 19일 본회의장에서 각각 당 윤리규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강필구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영광군의원 5명은 지난 16일 지역위

원회 사무실에서 이개호 지역위원장(농림수산부 장관)과 김준성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의원 윤리규범 자율 선포식을 갖고 청렴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진도군의회와 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도 지난 14일과 2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광역 및 기초의원들이 일제히 각 의회별로 갑질행위 근절 및 청렴한 정치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지난 18일 열린 ‘전남도당 송년회’ 행사에서 박문옥 도의원과 김보미 강진군의회원이 지방의원을 대표해 ‘당 윤리규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서삼석 도당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김갑봉 전남도당 사무처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당 윤리규범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서삼석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지방의회별로 결의대회를 가졌다”며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과 갑질행위 근절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공개

자유한국당은 26일 “환경부가 올해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며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문재인정부가 부처를 동원해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작성한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용남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

할 때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다, 선거캠프에 있던 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며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과 관련해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결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민정 쪽에 알아본 결과 조국 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 제출한 사람, 사표 제출 예정인 사람들이 기재돼 있다”며 “환경부가 문건을 보고

# 한국당 당협위원장 교체 제과 갈등 지속

### 비대위원·중진 연석회의 일부 의원 비대위 강력 성토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21명을 ‘불갈이’하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발표했는데 따른 파열음이 26일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부 중진의원들은 비대위가 주도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강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된 홍문종 의원은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여명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지휘한 김용태 사무총장은

겨냥해 “사무총장께서 (스스로 당협위원장 교체 대상에 포함되는) 용단을 내리셨는데, 지구당위원장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위원장을 공모하고 임명하는 데 속해 있느냐”라며 “그만 두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홍 의원은 비박계의 좌장 격인 김부성의 의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이 또 모집 인터뷰에서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도부가 뭐라고 말씀은 꼭 해달라”고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고 제2018-210호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후보 모집공고

『The(더) 안전하고 The(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을 갖춘 임원(사장, 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을 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임용예정직위	사 장	기술본부장	비상임이사
선발인원	1명	1명	1명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3년

3. 응모자격 등  
공사 홈페이지(www.grtc.co.kr) 공고문 참조

4.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18.12.27.(목)~2019.1.11.(금)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우61999) 광주광역시 서구 상대대로 760(마북동)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임원추천위원회(4층 총무팀)

5. 심사방법 및 임용절차  
가. 1차 서류심사  
1) 심사방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합격자(비상임이사 지원자 제외)에 한하여 자기검증기술서(소정양식, 별도안내) 제출

나. 2차 면접심사(※사장 및 기술본부장 지원자에 한함)  
1) 면접대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2) 면접방법 : 직무수행계획 설명회(개인별 직무수행계획 등을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후 개별 질의·응답  
3) 심사기준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노사 및 직원 친화력, 윤리관, 건강

다. 임용절차  
1) 사장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인사청문회 시행(광주광역시의회) ⇒ 임명(광주광역시장)  
2) 기술본부장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3) 비상임이사 : 후보자 추천(임원추천위원회) ⇒ 임명(광주광역시장)

※ 응모자격, 제출서류 등 자세한 공고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grtc.co.kr) 및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최신품법의 특수 방수!

###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모던건설)